

〈OCW신한 강의자료〉

반 주 법

유아교육학과 박 주 원

반 주 법

(5주차)

각 조의 주요3화음과 화음 선택법

1. 3화음(Triad chord)

높이가 다른 두 음이 동시에 울릴 때 화음(chord)이라 하고 이 화음이 연결되는 것을 화성(harmony)이라 한다.

어느 음 위에 3도와 5도의 음을 겹쳐서 이루어지는 화음을 3화음(Triad)이라 한다. 근음은 그 화음의 위치를 정해주며 3음은 그 화음의 성질을 나타내고 5음은 그 화음을 보강시켜 주어 완전한 화음을 만들어 준다.



<반주법>

- 장음계와 단음계 위에서 각 음 위에 3화음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화음들이 구성된다.
‘장’ 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온음 2개로 구성된 장3화음 이라는 뜻이고
‘단’ 이라 표기된 것은 온음 1개와 반음1개로 구성된 단3화음 이라는 뜻이다.

①장 조

장 단 단 장 장 단 감

C : I ii iii IV V vi vii°

주요 3 화음

부 3 화음

②단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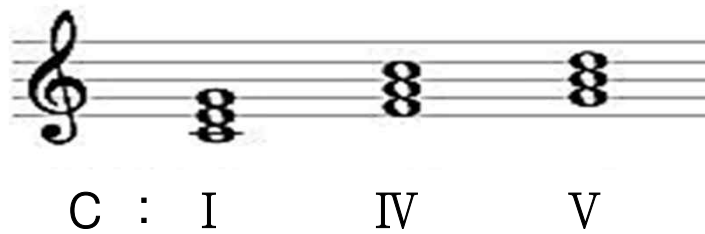
단 감 증 단 장 장 감

a :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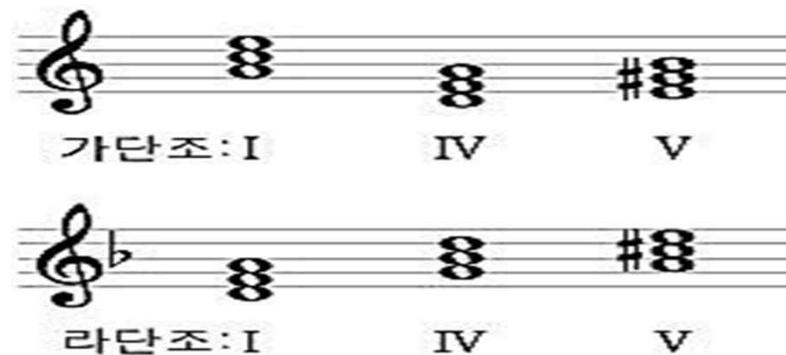
주요 3 화음

부 3 화음

- 장음계와 단음계의 으뜸화음(I), 버금딸림화음(IV), 딸림화음(V)을 주요3화음(Primary Triad)라 하는데 이는 음악의 흐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음악의 골격을 이룬다.
나머지 ii, iii, vi, vii의 화음들은 부3화음(Secondary Triad)이라 하며 주요3화음에 대체되거나 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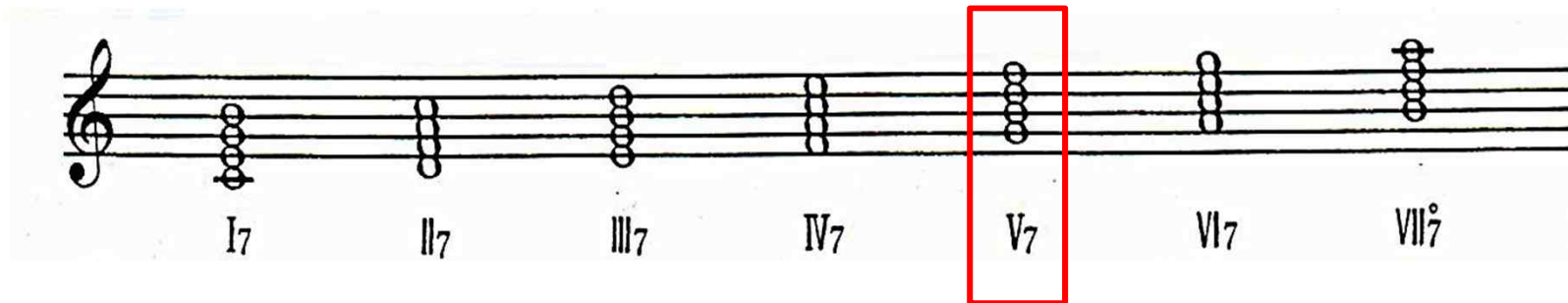
- 단음계의 으뜸화음(I), 버금딸림화음(IV), 딸림화음(V)도 주요3화음(Primary Triad)라 하며 단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조와 온음과 반음의 음의 구성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3화음 중 제3음은 음의 성질을 나타내는 음으로 제3음의 상태에 따라 3화음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 다음은 단조의 주요3화음을 보여주고 있다.



2. 7화음

7화음은 4개의 음을 3도의 음정간격으로 쌓아 올린 것 즉, 3화음 위에 밑음으로 부터 7도의 음정에 해당하는 음을 더하여 4개의 음으로 만드는 화음을 말한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딸림7화음 (V_7)인데 잘 어울리는 화음으로써 으뜸화음과 더불어 자주 사용된다.



3. 조성 별 주요3화음

- 동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림표가 있는 장조의 주요3화음

다장조: I IV V V₇

바장조: I IV V V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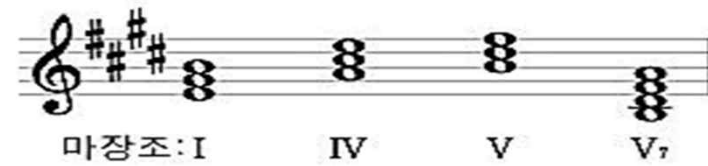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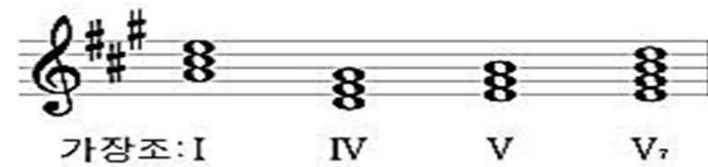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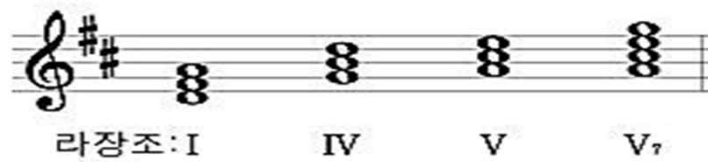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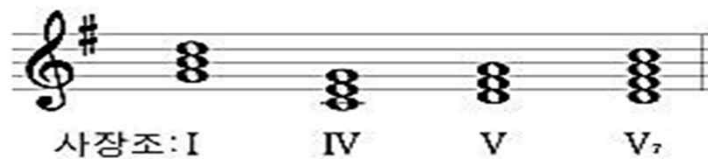
내림나장조: I IV V V₇

내림마장조: I IV V V₇

내림가장조: I IV V V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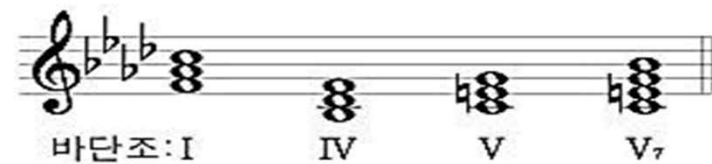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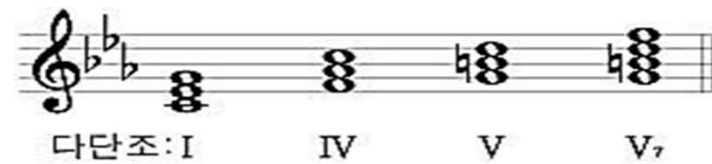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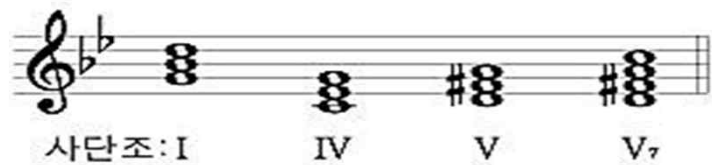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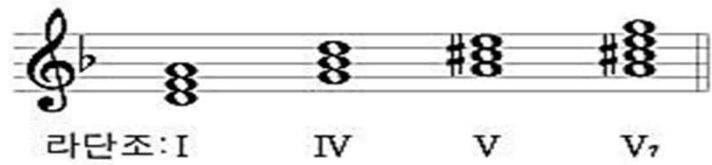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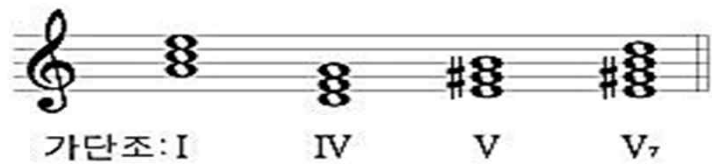
3. 조성 별 주요3화음

- 동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올림표가 있는 장조의 주요3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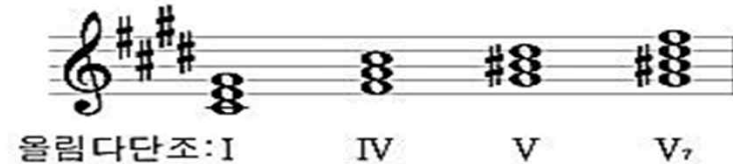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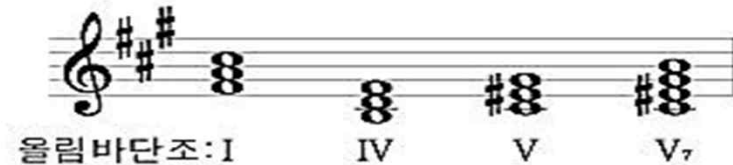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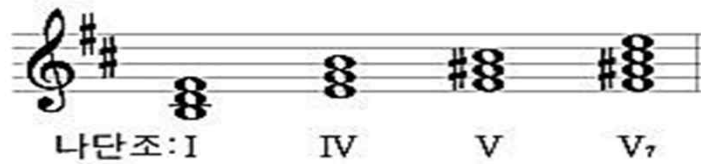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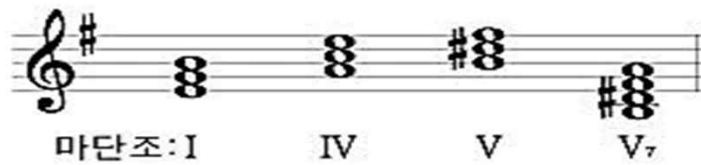
〈반주법〉

- 동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림표가 있는 단조의 주요3화음



〈반주법〉

- 동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올림표가 있는 단조의 주요3화음



4. 화음의 자리바꿈

근음을 베이스에 둔 3화음을 기본형이라 하고 화음 중의 어떤 음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리바꿈하여 화음 중 구성 음의 배치를 변화시킨 것을 자리바꿈 형이라 한다.

이는 기본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화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반주할 때 도약해서 다시 타건하는 어려움을 훨씬 줄이고 건반 가까이에서 연주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며 손가락의 움직임을 더욱 편리하고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화음을 자리바꿈하여 사용한다.

〈반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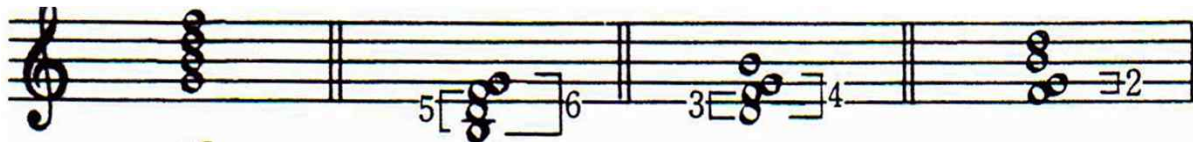
화음의 자리바꿈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화음을 두번 자리바꿈하는 것과 7화음을 세번 자리바꿈하는 방법이 있다 각 자리바꿈형의 화음은 용도와 분위기가 다르고 사용하는 화성기호도 각각 다르다.



밑자리

첫째자리바꿈

둘째자리바꿈



밑자리

첫째자리바꿈

둘째자리바꿈

셋째자리바꿈

-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주요3화음의 원형으로 반주하는 것보다 주요3화음의 자리바꿈형으로 건반상에서 안정적인 반주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화음의 마침꼴(Cadence)

동요곡은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악곡 도중 여러 가지 화음을 경과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나는데 이러한 연결형태를 마침꼴이라고 한다.

동요에서 많이 쓰이는 마침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quad I - IV - I \qquad \textcircled{2} \quad I - V - I \qquad \textcircled{3} \quad I - IV - V_{(7)}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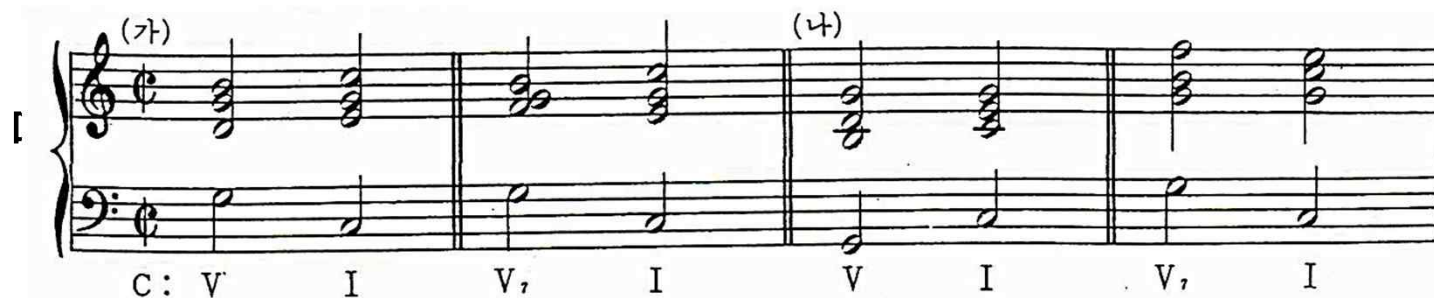
이 중에서도 $I - IV - V_{(7)} - I$ 의 종지형은 그조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화음의 연결이다.

〈반주법〉



마침법에는 악절이 완전히 끝나는 느낌을 주는 것과
일단락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마침법이 있다.

(1) 바른마침 (Authentic Cadence) V (V7) – I



딸림화음이나 으뜸화음이 모두 자리바꿈하지 않고 으뜸화음의 밑음이 소프라노에 위치할 때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갓춘바른마침이라 한다.

딸림화음이나 으뜸화음이 자리바꿈 하거나 으뜸화음의 으뜸음이 소프라노에 있지 않고 3음이나 5음이 위치하게 될 때는 못갓춘바른마침이라 한다.

(2) 벗어난 마침 (Plagal Cadence) IV – I

버금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진행하는 마침으로 보통 찬송가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멘종지 (Church Cadence) 라고도 한다.

가끔 악곡 도중에 자유로이 사용되고 바른마침보다 완전한 만족감은 주지 못하나 경건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3) 반마침 (Half Cadence) I – V, IV – V, II – V

바른마침과는 달리 으뜸화음 또는 다른 화음에서
떨림화음으로 진행하는 마침이다.

악곡도중에 자유롭게 쓰인다.



C : I V IV V